

## 都市의 一般住宅 變遷에 關한 研究\*

— 春川市를 中心으로 —

유 승 용\*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History of Popular Housing in City

— the Case of Chun-cheon City —

Seung-Yong Ryu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changes in popular house form of chuncheon city. 177 samples of the houses built in the period of 1951~1992 were selected. The house structure, size, equipment system were analyzed as well as material, color and types of roof alo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

### 1. 序 論

#### 1-1. 研究의 背景과 目的

住宅은 人間이 家庭生活을 이루는데 必要한 基本的 要素로써 個人은 물론 國家의 財産이요 社會, 經濟, 文化的 安定의 基盤이다.

또 住宅의 形態는 人間을 둘러싸고 있는

---

\* 이 논문은 1991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지방대학 육성) 과제 학술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

여러環境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形成되고 變化되어오면서 前래의 생활 습관과 근대화된 새로운 생활패턴이 함께 수용된 그들의 독특한 住居文化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自然環境, 그 時代의 政治, 經濟, 技術, 社會文化的 環境이 그것이다.

春川市의 住居文化도 이러한 環境的 背景에 의해 형성 發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民族의 비극인 6.25동란때에는 地域的 特殊性 때문에 이 地域이 격전장화되어 全市街地가 廢墟化되었고, 따라서 住宅들은 그 후 거

의 再建된 상태이다.

그러나 住宅文化는 그 地域의 生活과 建築文化를 읽을 수 있고 社會發展의 한 척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再建된 이후의 住宅부터라도 우선 그 변화 과정과 의장적 특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 1-2. 研究의 內容과 方法

본 研究는 春川市內에 散在해 있는 傳統住宅을 제외한 一般 單獨 住宅으로 1951년 이후부터 1992년 중순까지 公共機關이나 建設業體, 個人이 建立한 모든 住宅을 對象으로 하였다.

1951年代 以後를 時機的 基準으로 잡은 것은 前記한 바와 같이 6.25동란으로 거의 모든 住宅이 파괴되어 그 후 再建된 住宅으로 이를 기점으로 한 것으로 그렇지 않은 住宅은 傳統 住宅의 부류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調査方法은 시청 관계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現在 春川市廳의 모든 家屋臺帳(1992년 7월 20일 기준)을 3차 20일에 걸쳐 調査

확인하여 이들 중에서 이미 작성된 설문지에 洞別, 年代別, 構造別 및 기타 항목을 작성 1678棟을 선별하고 이들 중에서 이 地域住宅의 형태와 意匠的 發展過程 및 특징이 된다고 생각되는 住宅을 다시 洞別, 年代別, 構造別로 245棟을 抽出하여 現場 調査對象 家屋으로 選定하였다.

이렇게 選定된 家屋은 1992年 5月 15日 中央地圖文化社에서 發行된 축척 1/3000 인 春川市 地番 略圖에 표시를 하여 이 略圖에 따라 現場調査를 하였다.

現場調査는 1차 1992. 6. 14~21, 2차 1992. 7. 5~18, 3차 1992. 8. 1~14로 3차례에 걸쳐 집집마다 방문하고, 미리 作成된 설문지에 항목별로 확인 調査, 또 主人과 면담을 통해 보완 작성하고, 사진 촬영은 물론 특히 研究方向에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住宅은 平面實測을 하였다.

調査過程에서 都市 中心地에서는 이미 많은 住宅들이 改造, 改築이 이루어지고 또 現場 形편에 의해 실제 調査된 가옥은 177棟으로 본 研究는 이를 대상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표 1 참조)

Table 1. Housing number of a Dong & Term.

건축연도	51~56년	57~61년	62~66년	67~71년	72~76년	77~81년	82~86년	87~91년	92년	계
중앙로 1							1			1
중앙로 3					1					1
옥천동				1	1		1	1		4
봉의동		1	1	1		1				4
죽림동			1		1					2
약사동	2	1	2	1	1	1	2	1	1	12
낙원동				1		1				2
소양로 1			1	1			1			3
소양로 2		1		3						4
소양로 3					1					1
소양로 4								1		1
요선동					1					1

건축연도	51~56년	57~61년	62~66년	67~71년	72~76년	77~81년	82~86년	87~91년	92년	계
교 동	3	2		1	3	2	1	3		15
후 명 동		3	2	6	2	3	5	8		29
효자 1동			2		2	2		2		8
효자 2동	1			5	1	4	3	6		20
효자 3동		2		3	4	1		2		12
근 화 동	1	1	1	1			1	1		6
송 압 동	1							1		2
칠 전 동						1				1
우 두 동		1		5		2	1	1		10
조 양 동		1				2	1			4
운 교 동	1	1			2					4
은 의 동			1		1		1			3
삼 천 동		1	2		1	1				5
신 동			1					2	1	4
퇴 계 동		1		3		4	1			9
석 사 동		1			1	1		1	1	5
사 농 동				1	1	1	1			4
계	9	17	14	33	24	27	20	30	3	177

## 2. 住宅의 一般的 事項 分析

한 時代의 住居 樣式은 社會, 經濟 및 制度的 상황과 밀접한 關係가 되어 住居의 要求와 住宅生産의 能力이 表출되면서 한 時代의 樣式을 나타내고 그 樣式은 계승 발전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國家의 住宅政策이란 매우 중요하여 住居文化를 형성하는데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現代 國家에 있어서 住宅問題는 國家가 해결해야 할 기본과제요 책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사 주택에 대한 一般的 사항을 분석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 住宅政策을 (10단계로 구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sup>1)</sup>

### 가) 經濟開發計劃 期間 以前

#### ① 1941년~1945년

시대적 배경은 세계 제2차 대전 말기로, 우리는 일제하를 거쳐 해방된 시기이다. 住宅政策은 근로자와 저 소득층을 위한 住宅 공급을 목적으로 1941년 조선 총독부에 정책 주체인 朝鮮 住宅營團이 설립되었다.

#### ② 1945년~1950년

일제하에서의 해방과 더불어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6.25동란을 맞는 시기이다. 사회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人口가 移入되기 시작하여 都市化가 형성된다.

정책목표는 社會 福祉와 國民 후생적 측면

1) 大韓住宅公社, 大韓住宅公社三十年史, 1992, 7, 1 p.204~211 참고.

에서 住宅政策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③ 1951년~1956년

6. 25동란이후 파괴된 都市와 住宅을 再建하는 복구기간이다. 외국의 원조로 저소득층을 위한 住宅공급 마련에 급급한 시기이다.

④ 1957년~1961년

戰後 회복기이면서 4. 19, 5. 16혁명이 일어난 변혁기이다. 외국의 원조도 감소되고, 구호적인 住宅政策을 견지하고, 1957년부터는 수요자 부담의 住宅建設 政策을 수립하였다.

나) 經濟開發計劃 期間 以後

① 제1차 경제개발계획기간

(1962년~1966년)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住宅政策이 시작된 時期라 할 수 있다.

1962년 大韓住宅公社가 設立되고, 住宅의 建設目標은 노후 不良住宅의 改良에 두었다.

그러나 住宅 政策은 社會政策에서 經濟政策의 일환으로 전환은 되었으나, 主 政策이 經濟成長을 目標로 하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었다.

② 제2차 경제개발계획기간

(1967년~1971년)

사회적 배경은 都市 人口의 集中으로 도시 정비 및 확산을 위하여 대단위 택지 개발이 시행되고, 不良住居地 整備가 이루어졌다.

대단위 공동 住宅(아파트)시대가 시작되었고, 1969년에는 大韓住宅銀行이 設立되었다.

③ 제3차 경제개발계획기간

(1972년~1976년)

경제 개발과 住宅 政策에 편승, 사회적으로는 지가의 앙등으로 土地에 대한 高度利用의 必要性이 더욱 증대 되었다.

政策의 目標은 前代와 같이 住宅 供給의 확대에 주력하고 제1차 국토 건설 종합 계획

의 시행과 함께 住宅建設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1981년까지 250만호 建設을 目標로 하였다. 그러나 1973년 말 유류 파동으로 계획이 조정되었다.

④ 제4차 경제개발계획기간

(1977년~1981년)

이 기간은 住宅需要 초과외에도 住宅價格의 급등 등 부동산 투기현상이 일어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住宅의 안정적 공급등 綜合對策이 經濟政策의 차원에서 세워졌다.

또 대량 住宅供給의 전제 조건인 宅地 不足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1978년 12월에 韓國土地開發公社가 設立되었다.

⑤ 제5차 경제개발계획기간

(1982년~1986년)

이 기간의 住宅政策 目標도 住宅 供給의 확대와 住宅 價格의 안정에 주력하는 등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주거 유형 및 단지개발의 다양화와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과 주거 조건의 향상에 주력하였다.

⑥ 제6차 경제개발계획기간

(1987년~1991년)

이 기간의 住宅 政策 目標은 여전히 住宅 供給의 확대와 宅地 및 住宅 價格 안정화에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는 住宅規模의 小形化, 賃貸住宅 중심의 供給, 住宅 價格의 저렴화를 통하여 零細民 및 低所得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政策과 큰 변화없이 分讓住宅 위주의 住宅 政策은 低所得層에게는 점점 내집 마련의 實現 可能性이 멀어지게 하였다.

따라서 제6공화국은 출범과 함께 경제 정책목표를 量的 成長 위주에서 質的 改善에 두었다. 또 都市 零細民의 住宅 建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00만호 住宅 建設 計劃도 수립하였다.

이 期間과 연대를 비교 調査 住宅에 대한 一般의 事項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 2-1. 建築 構造

50年代 전반기에 있어서는 6.25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外國援助에 의한 政府의 住宅 建設주로 이루어 졌다.

조사 가옥 9동중 8동이 흙벽돌 구조로 벽체 마감은 시멘트 몰탈 뿔칠로 하였는데 이 住宅들이 원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住宅들은 再建 住宅이라하여 1團地에 50棟이상 建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棟당 材料는 93000환이 소요되었다.

春川市內에서는 9坪 (29.7㎡) 형, 12坪 (39.67㎡) 형이 建築되었는데 운교동에는 9평형이, 교동, 자동, 약사동에는 12坪형이 建築되었다 하고, 동수는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sup>2)</sup>

57~61년 기간중 1958년에는 시멘트가 본격적으로 生産되면서 시멘트 벽돌, 블럭조가 많이 건축되었다.

62~66년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기간으로 본격적으로 住宅政策이 시작된 時期로써 調査家屋 14棟中 시멘트 블럭조가 8동, 시멘트 벽돌조가 3동, 목조가 3동으로 단연 시멘트 재료에 의한 건축 구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67~71년은 제2차 경제개발기간으로 조사 가옥 33동중 목조가 11동, 시멘트블럭조가 8동, 시멘트 벽돌조가 12동, 붉은 벽돌조가 2동으로 역시 시멘트를 재료로 한 건축 구조가 66.6%로 단연 많고, 경제의 향상에 의해 붉은 벽돌조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木構造의 建築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傳統 木造형식이 아닌 것으로, 기둥(柱)은 9cm×9cm 크기의 角材로, 기둥과 기둥 사이는 시멘트 벽돌을 옆으로 세워 쌓고 (6cm 정도) 그 안과 밖을 시멘트 몰탈을 발라 心壁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붕은 원형이 아닌 角材로 서까래 형식을 취해 훗처마를 이루고, 그 위에 시멘트기와를 얹은 住宅으로, 경제의 성장과, 都市의

2) 당시 춘천시청에 근무하면서 주택 복구 사업에 직접 참여한 주민 박봉원씨의 말을 빌렸음.

人口集中으로 더욱이 부족한 住宅을 아주 저렴한 價格으로 生産하기 위해 一般 住宅業者들에 의해 建築된 이 지역 특유의 구조로, 특히 추운 이 地域에서는 적합치 않은 住宅이지만 이는 이 地域의 경제 水準을 나타내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木構造는 78년부터는 외벽에 벽돌 크기의 石板 마감이 등장하고, 82~86년까지는 타일과 돌붙임이 같이 병용 建築되면서 이후부터는 이러한 木構造는 建築되지 않는다.

그러나 82년부터는 붉은벽돌, 변색 벽돌 구조가 조금씩 나타나는데 이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택의 質이 향상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87~92년 사이에는 調査家屋 33棟中 6棟만 붉은 벽돌 구조이고 나머지 27棟은 모두 변색 벽돌구조로 住宅 建築材料의 편중 선호 및 시대적 변화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 2-2. 建築 面積 및 層數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기간 동안의 평균 건축면적과 평균 연면적은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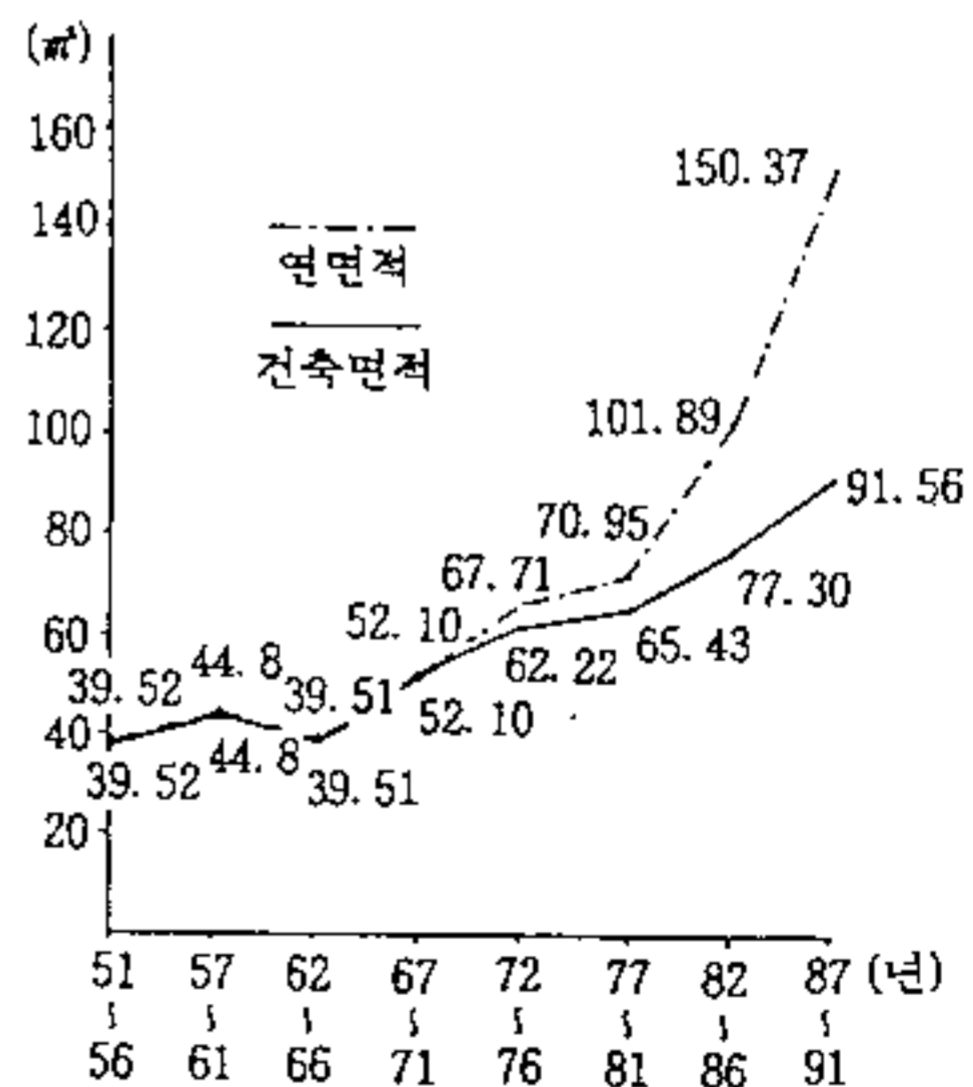


Fig. 1. Mean building area & architectural area.

경제 및 國民生活의 향상과 더불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62~66年代에는 建築面積과 연면적이 줄었다는 것과 71년까지 2층 집이 없다는 점이다.

또 72년 이후부터는 점차 2층 집을 建築하므로써 연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82~86년부터는 住宅 21동중 1층이 13동, 2층이 8동으로 늘어났다.

87~91년 사이에는 31동중 1층이 7동, 2층이 24동으로 평균 建築面積은 91.56㎡, 평균 연면적은 150.37㎡로 住宅의 규모가 현격히 커짐을 알 수 있다.

### 2-3. 寢室의 數

住宅에서의 침실수는 그 규모와 연상되어 지는데, 분석에 의하면 절대 그러하지가 않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기간별로 침실의 수는 평균 3실이 조금 넘는 수로써 일정한 침실의 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住宅의 연면적은 점차 넓어져 57~61년 사이의 연면적과 92년의 연면적을 비교하면 거의 2.7배에 해당하는 연면적이 늘었다.

Table 2. Mean building area & bedrooms number

구분 기간(년)	연면적 (M)	침실수
51~56	39.52	2.9
57~61	44.80	3.0
62~66	39.51	2.6
67~71	52.10	3.3
72~76	67.71	3.6
77~81	70.95	3.9
82~86	101.89	3.9
87~91	150.37	5.3
92	119.64	3.5

이는 基本的으로 住宅에서의 침실 크기는 작지만 침실의 수는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뜻으로 가족수와 연관되어진다.

그러나 연면적이 넓어진 것은 방의수를 늘리는 것과 큰 차이없이 각 침실의 규모를 크게 넓히고 현대 생활에 필요한 기타실의 확보로 분석되었다.

또 87~91기간에 연면적과 방의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1988年 6月 16日 住宅건설 촉진법시행령에 의해 다세대 住宅이 建築되면서의 변화인데 이는 일반 단독 住宅과는 구분되지만 시대적 住宅의 변화를 찾기위해 포함시켰다.

### 2-4. 便所 形式

변소는 住宅의 규모와 生活環境을 개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1966년까지는 92% 이상, 77~81년 기간에 와서는 65.38%까지 재래식 변소를 이루는 것을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수세식 변소를 도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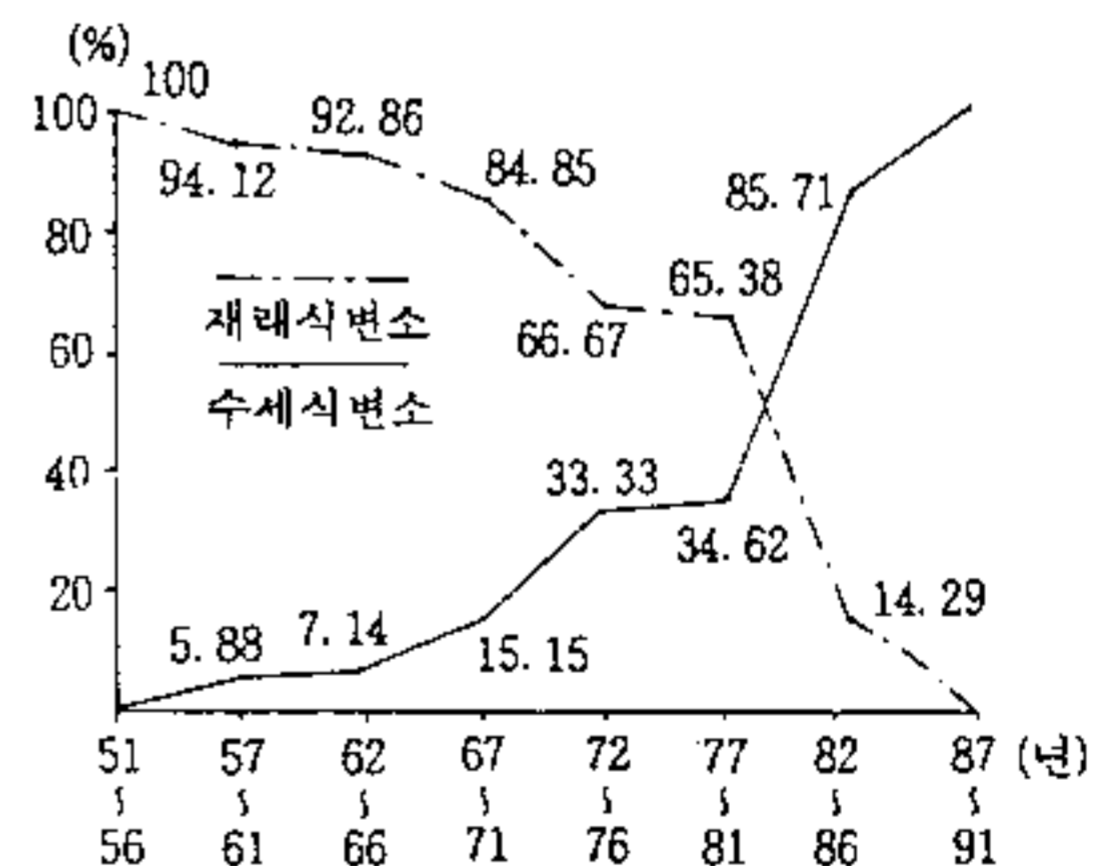


Fig. 2. Lavatory system.

이는 住宅에서의 平面形式도 같이 변화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87년부터는 100% 완전 수세식 변소를 도입하였다.

### 2-5. 煖房形式

住宅에서 난방 형식은 크게 재래식 온돌, 연탄보일러,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등으로 구분되는데 51~56 기간에는 재래식 아궁이 온돌구조가 연탄을 쓰면서 변화되고 연탄보일러 형식으로 개조되었다.

Table 3. Heating System

구분 (%) 기간 (년)	재래식 온 돌	연 탄 보일러	기 름 보일러	가 스 보일러
51~56	66.67	33.33		
57~61	58.82	41.18		
62~66	57.14	42.86		
67~71	36.36	45.46	18.18	
72~76	25.00	54.17	20.83	
77~81	23.08	38.46	34.62	3.84
82~86	4.76	4.76	90.48	
87~91		3.23	96.77	
92			100.00	

(표 3)에서와 같이 66년까지는 연탄아궁이와 연탄 보일러에 의한 난방 형식이 비슷하게 병용되었고, 67~71년 기간부터 기름 보일러 형식이 등장하여 82~86년 기간에 와서는 거의 90% 이상이 기름 보일러에 의한 난방형식을 취하고, 87년 이후부터는 완전 100% 보일러 형식이고 그것도 기름 보일러에 의한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 2-6. 車庫設備

現代 生活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人間의 活動 범위는 더욱 커지고 加速化되고 있다.

따라서 乘用車의 所有도 날로 늘어 이제 住宅에서의 車庫는 住宅을 새로 짓는다면 必需 空間이라 할 수 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81년까지는 全無인

상태이고, 82~86 기간부터 221동중 3동이 車庫를 확보 14.2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87~91 기간에는 住宅의 外形의 규모는 커졌으나 31동중 9동만이 車庫를 두어 29.03%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어 住宅街는 駐車場化되어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住宅의 규모에도 영향이 있지만, 건축법, 駐車場法도 앞으로 그 기준을 補完하고, 특히 앞으로 주택을 新築하는 建築主는 이를 스스로 갖추는 것이 해결의 핵심이라 하겠다.

## 3. 住宅의 意匠的 分析

住宅의 意匠的 特性은 一般的으로 環境的, 傳統的, 機能的, 造形的 要因들의 영향 관계를 고려한 各部에 형성되어진 外形에 의해 나타난다.

이는 住宅을 構成하고 있는 基壇部, 壁體, 窓戶, 지붕 등 各部의 要素를 분석하므로써 그 特性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다.

### 3-1. 基壇

기단은 形狀, 用材에 따라 여러 形態로 변화되어 왔으나 住宅에서는 全體 또는 部分的으로 설치되는데 木造에서는 모두 全體基壇 형식을 취하고 組積造 등의 住宅에서는 대부분 全面에서 部分基壇을 形成하고 있다.

材料의 마감은 全期間에서 50% 이상 시멘트 몰탈마감을 쓰고 있는데, 67~71년 기간 이후부터는 인조석 마감기도 12.12% 이상, 77~81 기간에는 50%까지도 쓰고 있다. 87~91 기간에는 6.45%로 본건물과의 調和를 이룰수 있게 같은 재료인 붉은벽돌 또는 변색 벽돌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3-2. 壁體

外壁의 形成 要素인 壁體는 窓戶와 함께

不可分の 관계가 있다.

壁體의 材料, 質感, 色彩, 窓의 形態와 크기의 변화에 따라 壁體는 그 形態가 강조되기도 하고 변화를 주기도 한다. 기본적으로는 住宅의 디자인에서부터 意匠的 效果를 같이 나타내지만 住宅에 使用된 마감材料에 의해 視覺的 기대효과는 매우 크다 하겠다. (표 4)에서와 같이 주 마감 재료는 시멘트 몰탈로 81년까지 많이 사용되고, 82~86까지 타일과 돌붙임이 병용되고 있음을 보이는데, 이는 72~76년 기간부터 특히 組積造보다 공사비가 훨씬 저렴한 변형된 木造住宅을 지으면서 外形的으로는 시각적 효과를 내어 보이는 의미에서 使用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82~86 기간부터는 66.67%라는 높은 비율로 붉은 벽돌과 변색벽돌을 사용 마감재로 쓰면서 住宅의 質을 매우 향상시킴을 보이고 있다.

Table 4. Closing materials of on outer wall

재료 (%) 기간(년)	시멘트 몰탈	타일	돌 붙임	흙벽	붉은 벽돌	변색 벽돌
51~56	100.00					
57~61	76.47	5.88	5.88	11.77		
62~66	100.00					
67~71	75.76	15.15			9.09	
72~76	45.84	8.33	33.33		12.50	
77~81	34.61	3.85	53.85		7.69	
82~86	4.76	9.52	19.05		28.57	38.10
87~91					19.35	80.65
92						100.00

(표 5)에서와 같이 외벽의 색채는 주색상은 흰색, 회색, 미색, 벽돌색인데 이 중에서 벽체가 일반적으로 시멘트 몰탈마감으로써 그위에 색을 칠하는데 가장 쉽고 밝은색인

흰색을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72~76년 기간을 경계로 이후부터는 벽체의 외부마감재로써 붉은 벽돌을 쓰기 시작하여 82~86년 기간에는 66.67%라는 많은 양을 사용하므로써 외벽의 색상도 그대로 벽돌색으로 나타나고, 그후에는 완전 100%의 벽돌 재료를 사용함과 동시에 외벽의 색상도 그대로 나타나 단일색상을 보이고 있다.

Table 5. Color of on outer wall

색상 (%) 기간(년)	흰색	회색	미색	푸른색	벽돌색	녹색
51~56	100.00					
57~61	76.47	11.77	10.96			
62~66	50.00	21.42	14.29	14.29		
67~71	51.52	9.09	6.06	18.18	12.12	3.03
72~76	41.67	16.67	25.00	4.16	12.50	
77~81	19.23	50.00	11.54	3.85	15.38	
82~86	9.52	23.81			66.67	
87~91					100.00	
92					100.00	

### 3-3. 窓 戶

住宅 外觀의 窓戶는 使用되는 材料性格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변화되어왔다. 住宅에서의 窓은 正方形窓, 水平窓, 垂直窓 등으로 大別되는데, 現代에 와서 窓戶는 機能 및 造形的인 要素로서 취급되고, 時代 感覺에 따라 住居의 特性을 구분하는 重要な 要素이다.

조사된 住宅에서는 窓의 形態는 82~86년 기간을 中心으로 以前에는 正方形의 窓이 많고, 그후부터는 正方形은 물론 水平窓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窓戶 材料의 사용도 의장



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표 6)에서와 같이 72~76년 기간까지 일반적인 木材 窓戶가 이 기간을 중심으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대신 알루미늄 창으로 교체되는데, 특히 82~86년 기간은 외부 마감재료가 붉은 벽돌 또는 변색벽돌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창호재에서도 이들 벽돌재료와 調和를 이루는 갈색알루미늄창이 70%이상 사용되고 최근에는 100% 모두 갈색 알루미늄 창을 쓰고 있다.

Table 6. Materials of Window frame.

재료 (%) 기간 (년)	목재	흰색 알루미늄	갈색 알루미늄
51~56	100.00		
57~61	94.12	5.88	
62~66	92.86		7.14
67~71	90.91		9.09
72~76	87.50	4.17	8.33
77~81	69.23	19.23	11.54
82~86	23.81		76.19
87~91	3.22	25.81	70.97
92			100.00

### 3-4. 지붕 形態 · 材料 및 色相

지붕은 住宅(建築物)에서 없어서는 안될 基本的 構成要素로 이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지붕의 形態는 文化, 文明, 歷史의 흐름과 地理的 條件, 材料의 種類, 氣候, 文化 등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또 新技術은 지붕 디자인에 새로운 可能性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 건축에서 기본적인 지붕 양식은 맞배 지붕, 모임 지붕, 팔작 지붕 등인데 조사된 가옥들도 이 세가지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시대에 따라, 지붕材料의 종류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조사된 이 지역의 지붕 상태 등은 각 기간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7. The form of roof.

종류 (%) 기간(년)	맞배 지붕	모임 지붕	팔작 지붕	평 지붕	눈썹 지붕	사면꺾임 지붕
51~56	88.89	11.11				
57~61	23.53	70.59		5.88		
62~66	85.72	7.14	7.14			
67~71	3.03	69.70	9.09	15.15	3.03	
72~76	8.33	45.84	20.83	25.00		
77~81	19.23	23.08	34.61	23.08		
82~86	9.52		28.57	38.10	23.81	
87~91	3.23	16.13	29.03	48.38	3.23	
92				100.00		

(표 7)에서와 같이 맞배 지붕은 최근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62~66년 기간을 시점으로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 대신 모임 지붕과 평지붕 형태가 그 다음 기간부터 큰 비율로 나타나는데 이는 건축규모에서도 밝혔듯이 住宅의 규모가 점점 커진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특히 82~86년 기간부터는 평지붕 형태를 제일 많이 취하고 그 다음이 팔작 지붕과 눈썹 지붕 형태이다.

눈썹 지붕 형태는 67~71년 기간에 조금 나타났는데, 특히 87~91년 기간에는 눈썹 지붕 형태가 48.38% 라는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시대적으로 지붕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지붕 材料는 최근까지도 시멘트 기와를 주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87~91년 기간부터는 특히 스페인 기와를 많이 쓰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아스팔트 싱글도 점차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8. The class of roof tile.

재료 (%) 기간(년)	시멘트 기 와	슬래 이트	슬레이트 기 와	스페인 기 와	아스팔트 섬 글
51~56	100.00				
57~61	82.35	11.75			
62~66	92.86				
67~71	78.79		3.03		3.03
72~76	70.83		4.17		
77~81	73.08				
82~86	47.62			9.52	
87~91	19.35			45.16	6.45
92					

지붕의 色相은 (표 9)에서와 같이 최근까지도 회색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인지 시멘트 기와 그 자체의 색상을 나타낸 까닭이다.

Table 9. The color of roof tile.

색상 (%) 기간(년)	회색	붉은 색	파랑 색	검정 색	노랑 색	갈색	녹색
51~56	77.78	22.22					
57~61	82.35		5.88	5.88			
62~66	78.57		7.14		7.14		
67~71	78.79	3.03				3.03	
72~76	58.33	12.5	4.17				
77~81	46.15	15.38	3.85				7.69
82~86	23.81	28.57	4.17				
87~91		54.84	3.23	3.23		6.45	3.23
92							

72~76년 기간 부터는 붉은색(벽돌색계통)이 점차 많은 지붕색상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외벽마감재료인 붉은벽돌(또는 변색벽

돌)이 점차 많아지면서 이와 조화를 이루는 색을 쓰고 특히 87년 이후부터는 스페인 기와를 45% 이상 사용하므로써, 그 자체 색상인 붉은색이 54.84% 라는 높은 비율의 지붕색을 보이고 있다.

#### 4. 結 論

이상과 같이 春川市의 住宅에 대한 일반적 사항과 외장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 그 변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955년대에는 6.26후의 복구사업 일환으로 외국 원조에 의한 住宅건설이 이루어졌는데 이 주택을 재건 住宅이라 하였다.

구조 재료로는 흙벽돌을 사용하고, 그 위에 시멘트 몰탈 뽕칠 마감을 하였다.

2) 1958년부터는 시멘트의 본격적인 생산으로 1981년까지 시멘트 블럭 및 시멘트 벽돌 구조가 60% 이상 건축되었다.

3) 1967년부터는 목구조도 33% 이상 건축되고 1981년까지 38.46% 라는 높은 비율로 건축되었다. 이는 전통 건축형식이 아닌 기둥은 90cm×90cm의 각재이고, 벽체는 시멘트 벽돌을 옆으로 세워 쌓았고, 지붕은 방형의 서까래를 사용한 홑처마 형식으로 이 기간에는 저렴하고 단기간에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나타났다.

4) 1972년 이전까지 주로 건축된 1층 住宅이, 이후부터는 2층집이 건축되어 住宅의 규모가 커지는데, 특히 1987년 이후부터는 77.4%라는 높은 비율로 2층집이 건축되었다. 침실수는 최근까지도 이와 비슷한 평균 3~3.5실인데, 1988년 이후 최근 1992년까지 연면적은 초기보다 2.7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침실은 3실이여야 하고, 최근에 와서는 이 침실들의 규모가 커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5) 변소는 1981년까지 재래식 변소가 65.38%라는 큰 비율로 나타나고, 이후 1982년부터는 수세식 변소가 85.71%라는 높은

비율로 구성되고 있다.

이는 住宅의 평면 형식도 크게 변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6) 난방형식은 1982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주로 재래식 온돌 및 연탄 보일러형식인데 이후부터는 90% 이상 기름 보일러 형식을 취하고 1987년 이후부터는 100% 완전 기름보일러 형식을 취하고 있다.

7) 車庫의 확보는 1981년까지 全無 상태이고, 1986년까지는 14.29% 확보 이후 1992년까지 실측된 住宅 33동중 9동만이 차고가 있어 29.03%라는 저조한 상태이다.

8) 住宅의 벽체 마감재료는 1981년까지 주로 시멘트 몰탈 마감을 하였고, 1992년 이후부터는 붉은 벽돌(변색 벽돌)을 66%이상 사용되었다.

9) 창호재료는 1981년까지 주로 木材를 썼으나 그 후부터는 주로 갈색 알루미늄을 썼다.

10) 지붕형태는 1981년까지 모임 지붕, 팔작 지붕을 57% 이상 나타나는데 그 후부터는 평지붕, 눈썹지붕이 61% 이상 나타나고 있다.

11) 지붕 재료로는 최근까지도 주로 시멘트 기와를 쓰고 있는데 1987년 이후부터는 스페인 기와를 주로 쓰고 아스팔트 형글도 사용하고 있다.

12) 지붕 색상은 1986년까지 화색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후부터는 스페인 기와를 주로 사용하므로써 붉은색이 54%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住宅에 대한 歷史를 찾는 것은 그 지역의 기후, 풍토, 습관 등 여러 환경적 요소를 분석하므로써 더욱 분명한 變遷過程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과정 중에서 그 기초적

과정으로 앞으로 이 연구는 계속 이루어져 더욱 확실한 住宅 文化의 歷史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된다.

## 參 考 文 獻

1. 朱南哲, "韓國住宅 概論", 一志社 (1980)
2. 李在勳, "住居의 概念", 泰林文化社 (1991)
3. 李好璉, "建築 意匠論", 産業圖書出版公 (1987)
4. 大韓住宅公社, "大韓住宅公社 30年史", 韓國컴퓨터産業(株) (1992)
5. (株)住宅문화사, "91년판 韓國住宅 總覽", 삼성인쇄주식회사 (1990)
6. 金正在, "住居 建築 外觀의 體系化에 관한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7. 조용훈, "한국 도시주택의 변천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4)
8. 윤정숙외, "한국 도시주택의 평면구성 형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6권 4호 (1990)
9. 최춘환외, "60년대 공영주택의 변용 양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6권 4호 (1990)
10. 윤복자외, "한국 주거형태 변천과정에서 본 주거학의 생태학적 개념정립",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8권 6호 (1992)
11. 林永培, "單位 住宅의 住居 變更에 관한 分析的 研究",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권 5호 (1991)
12. 이상현외, "도시 주거지 형태 및 기능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7권 2호 (1987)